

광주서 전국 첫 '행복 축제' 열린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 제1회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 19-20일 ACC...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강연 등 마련

광주에서 국내 최초로 행복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세계행복의 날(3월20일)'을 맞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주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국회 국민총행복 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 동·서

광산구 등 3개구와 (사)국민총행복전문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오는 19-20일 양일 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행복정책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프로그램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되, 유튜브 '행복TV' 생중계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행복정

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이 함께 열린다. 공모 주제는 행복한 나라 지역(공동체) 시민행복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12일까지이다. 공모 형식은 ▲응원 ▲동영상 ▲음악 ▲사진 ▲춤 등 글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시상은 오는 19일 본선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국민총행복대상(1팀, 상금 200만원), 금상(1팀, 상금 100만원), 은상(3팀, 상금 각 5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행복 담벼락(Happiness Wall) 캠페인'은 ▲행복정책 콘서트 ▲도움

김용옥과 소울 박진도의 명사특강 ▲행복명사 릴레이 강연회(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 명사 3-4명이 '행복'을 주제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축제 누리집 '행복정책페스티벌.com'을 참고하면 된다.

임택 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과연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들을 위로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서구,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광주 서구가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효과 등 4대 추진분야 13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전담부서와 추진부서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 적극행정 추진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는 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자체 제작·홍보해 적극행정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구하는 '사전 컨설팅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도도 운영한다.

또, 특별점검을 실시해 소극행정 효과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구는 '2021년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분기별 이행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북구의회 리모델링 사업 17일 준공

광주 북구의회가 의회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북구의회는 오는 17일 의회 공간 리모델링 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청소와 이사를 거쳐 3월 넷째 주부터는 다시 의회 공간에서 업무를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6억원의 의회 신속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의회 신속 또는 증축을 추진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와 예산 낭비 우려 탓에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특히 광주 북구청이 2035년까지 청사 이전이나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해, 북구의회는 현재 북구의회 공간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의회가 사용하는 구청 청사 3-4층의 공간을 재배치해 현재 2인 1실이던 의원실을 1인 1실로 개설했다.

리모델링 기간 북구의회는 회의나 업무 일정을 구청의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 개최했다. /김동수기자



파손도로 보수작업 겨울철 눈과 동결·융해의 반복 등에 따라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인 이른바 '포트홀(Pot Hole)'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도로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광산구-관광공사, '혁신 프로젝트' 선정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 크루'...관광특화상품 개발

광주 광산구는 ㈜브라운컴퍼니와 구상한 사업단이 한국관광공사의 '2021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57개 프로젝트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종합심의를 거쳐 6개의 사업을 선정했고, 광주에서는 광산구 사업단이 유일하게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광산구 사업단이 공모에 제출한 '광주 유니버시티 로컬 크루 프로젝트'는 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생한 소위 '로컬 MZ세대' 광주 대학생들과 100명의 일자리 창출, 1천개의 특화상품 개발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브라운컴퍼니가 보유한 여행·액티비티 플랫폼 '액

스크루'를 무대로 진행된다. 지역 대학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공동기획·홍보·판매에도 나선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산구 사업단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명목으로 7천만원의 운영비와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을 받게 됐다.

아울러 평가를 거쳐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는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특화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산구를 관광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훈석기자

남구 구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풍성'

오는 6월까지 특독 역사교실·3D 코딩 등 마련

광주 남구는 책 읽기 생활화와 구립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석달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구립도서관인 문화정보도서관과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에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도서관마다 각기 다른 색채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리모델링 중인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실시간 강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한 3개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3-4학년을 위한 '특독 역사교실'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우리 역사' 및 '어른이 배우는 영어동화' 프로그램을 이 곳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푸른길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며, 4차산업 관련 3D와 코딩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영유아를 위한 '복적복적 책 놀이터'와 '폼지락 책이랑 놀기'를 비롯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랑 과학이랑', '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책 먹는 꼬마 요리사', '창의력 속속 리딩보드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관내 청소년들에게 4차산업의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을 만들어봐! 3D 수업' 및 '술술 풀

어내는 코딩'을 운영하고, 청년과 장년을 위해 '프랑스 자수 작업실'과 '일상 속 스머드는 캔들&천연비누 만들기', '책과 함께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청소년도서관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조물조물 그림책 놀이터'를 비롯해 '아이들 위한 북 큐레이션' 등 초·중학생과 성인을 위한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lib.namg.u.gwangju.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문화정보도서관(062-607-2522) 또는 푸른길도서관(062-607-2532), 청소년도서관(062-607-2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훈기자

서구, 체력인증센터 본격 운영

운동상담·처방 등 스포츠 복지 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 '국민체력 100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7일 서구에 따르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은 국민 체력·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운동상담과 처방을 해주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작년 12월 공모에 선정된 서구는 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국비 1억6천여만원을 유치하고 체력 측정 장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실시한 체력측정 프로그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체력 측정항목이 동일했으나 이번 서비스에서는 측정항목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더욱 정확한 측정값을 산출할 수 있다.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1기 신청자에 사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필수적인 체력측정 ▲건강 측정 ▲전문 건강운동관리사의 맞춤형 운동처방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운영 ▲온라인 운동상담 서비스 ▲출장측정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접수, 손소독, 발열 체크, 명부 작성 확인, 공간 소독 및 환기, 표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가운데 운영된다.

만 11세 이상(건강측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민체력100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062-350-4566·4572) 예약을 통해 서구체력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